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

김종한 / 상주시청 사회복지계장

생로병사의 과정을 밟으며 되풀이 되는 희로애락의 굴레속에서 애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이 인생의 여정이나, 선인들의 이야기에 삶이란 사는 동안은 '영겁의 세월' 같아 길게 여겨 질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찰나의 세월' 즉, 반짝하다가 화살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한 순간이 우리의 인생살이 라고들 한다.

흔히들 한 인간 일생의 과정을 42.195km의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험난한 극기력으로 연상되기도 한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출발부터 도착까지 설새없이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이어지듯이 고달픈 인생살이에 곧잘 비유되기 때문이다. 각종 경쟁에 이겨 누구나 우승자가 되고 월계관을 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 바람이고 삶의 궁극적 희망이나 세상살이란 자신이 마음먹은대로 살아 주지도 않을뿐더러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한다.

가족, 집안이나 사회조직 테두리 안에서 얹히고 설켜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공동체의 역할자, 기여자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소임에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부단히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평소에 주변을 살피고 덕을 쌓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마음이야 말로 베풀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로 고귀한 생애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옛 성인군자도 사방 팔방으로 철두철미하고 완벽하지는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고비에 부딪치다 보면은 시행착오와 갖가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그대로 숨겨서 되풀이 되어 오래 간다면 결

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나 재앙을 겪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부짖어도 소용은 없다. “필름은 되돌릴 수 있다지만 지나간 인생살이는 이력으로 새겨져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더 나은 영육간의 삶을 위하여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드러내고 누구에게나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 지나고 나면 부질없어 후회되고 아쉽다.

누구나가 죽음의 명제는 분명하고 생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잘못은 풀어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숙제를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으로 체면과 허세 때문에 가슴에 한맺힌 멍울들을 자국으로 남겨 얼룩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현실이고 제일 소중한듯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한치 앞의 생사를 모르는 인간의 생명은 강하고 모질기도 하지만 한편은 종이조각 타듯이 하찮은 연기처럼 사라지듯 허무하기에 한 순간을 살면서도 후회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참다운 인생철학일 것이다.

속세의 각박한 생존경쟁에 약육강식의 숨막히는 현실은 당찬 패기와 열정으로 정의와 원칙으로 살아가기란 너무나 힘들고 벅차지만 그래도 만인을 위하고 승리대로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삶의 질이 향상되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라는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

인간이 태어나서 생명을 다하여 죽더라도 이 세상은 영원 불멸하듯이 우주전체로 볼때 한 인간은 단지 광활한 사막의 한낱 미세한 모래알에 불과하니 옛 성인도 ‘인간만사 새옹지마’라고 하며 또 흔히들 ‘일장춘몽’ 인양 한편의 드라마로 점차 기억속으로 사라지는 덧없고 무상하다고 했다.

우주는 한없이 넓고 세상은 영원 유구하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살이이나 또 남은 인생살이를 값지고 가치있게 살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어 잘못과 악의 찬 과오는 드러내어 어린아이에게도 고개숙여 뉘우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뚝뚝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진정한 참모습으로 빛이 날 것이다.

특히 살아오기 보다 살아가기가 얼마 남지 않은 모든이들은 한번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는 구하고 용서는 받아드리는 아량을 베풀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다 같이 매진해야 할 것이다.